# 과열 부담? 그래도 IT가 제일 편하다

코스피는 우상향 기조를 유지. 주도 업종인 IT가 지수 상승을 견인할 전망
외국인의 IT 선호 현상은 지속. AI 성장과 함께 실적 개선세가 기대되기 때문
IT 업종의 10월 수출 실적은 타 업종보다 양호. 투자 시각을 바꿀 필요 없음

## 업종 분산보다 IT에 집중 투자할 필요

지난 한 달 역사적인 랠리를 보인 코스피가 11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지 기대가 높다. 일단 우상향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순매수가 특정 업종으로 쏠리고 있지만, 그 대상이 IT 업종이란 점에서 지수 방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이 IT를 좋게 보는 이유가 있다. 한국 IT 업종의 실적 전망치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를 위해 MSCI 지수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EPS를 살펴보면 한미 IT 업종의 EPS 기울기는 유사하다. 엔비디아가 견인하는 AI 성장세에 한국 IT 산업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업종을 사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일각에서는 과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환율과 주식시장 간 역학관계에 균열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승 랠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부담스럽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 주식시장은 환율 외에 다양한 증시 부양책과 CDS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 완화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월초에 발표된 수출입 동향도 나쁘지 않다. 10월 수출은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에도 전년 동월 대비 3.6% 늘어났다. 일평균 수출 증가율로 바꾸면 14% 증가했다.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과 정의 상관성을 보이는 걸 감안하면 주식시장에 대해 낙관론을 유지해도 무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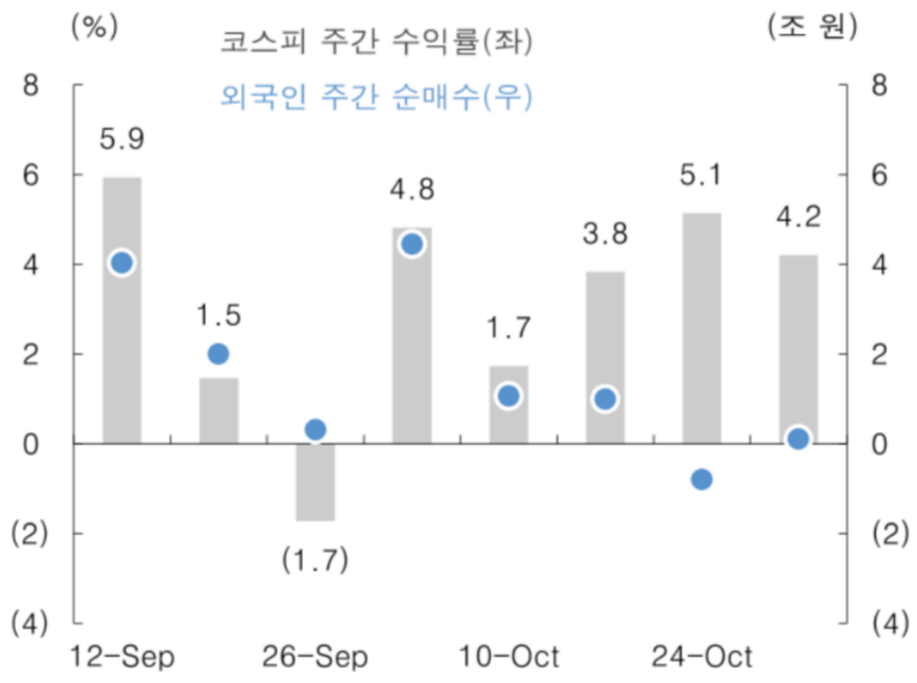
품목별 수출 실적을 본다면 최근 증시를 견인한 반도체는 작년보다 일평균 38% 늘어났다. 컴퓨터, 디스플레이 등 IT 업종의 수출 호조세도 확인됐다. 무선통신기기 같은 경우는 아직 (-)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9월보다 20.4%p 오르는 등 개선세가 포착된다. 한편, 관세 이슈에 노출된 자동차는 수출 실적이 저조했다.

지난주 APEC 효과로 IT 외 업종도 상승했지만 여전히 한국 증시 중심에는 IT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반도체, 하드웨어 업종은 수출 호조, 실적 개선에 이어 수급 환경까지 양호하다. IT에 대한 투자 시각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다. 혹시라도 과열 부담이 시장을 흔들더라도 주가가 가장 안정적일 업종은 IT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대준
daejun.kim@koreainvestmen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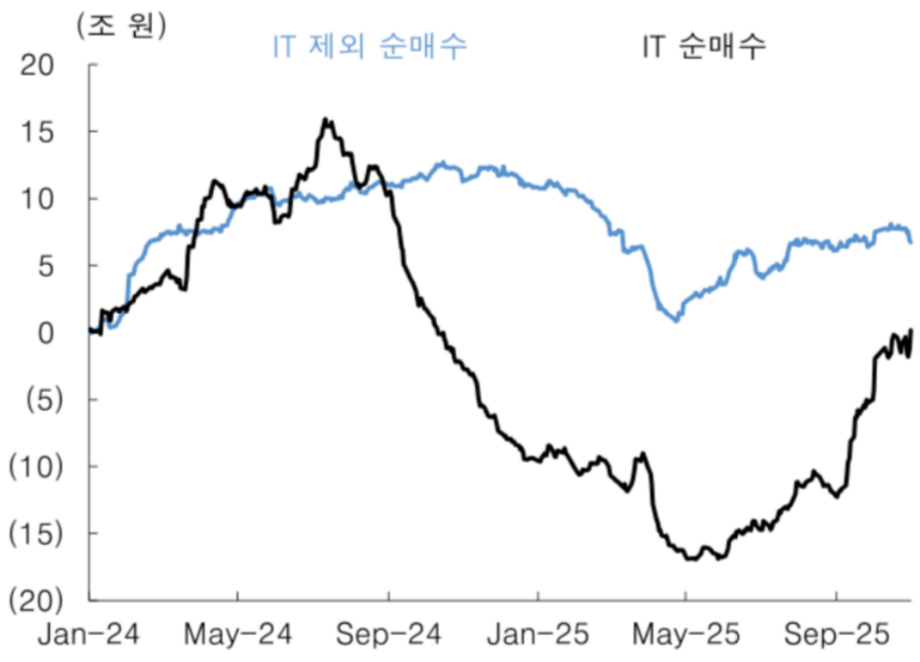
한국투자증권은 당사 고객 및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맺은 법인에게만 리서치 리포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사전 승인 없이 리포트를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및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림 1] 코스피 주간 수익률과 외국인 순매수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 [그림 2] 외국인 순매수: IT 업종과 나머지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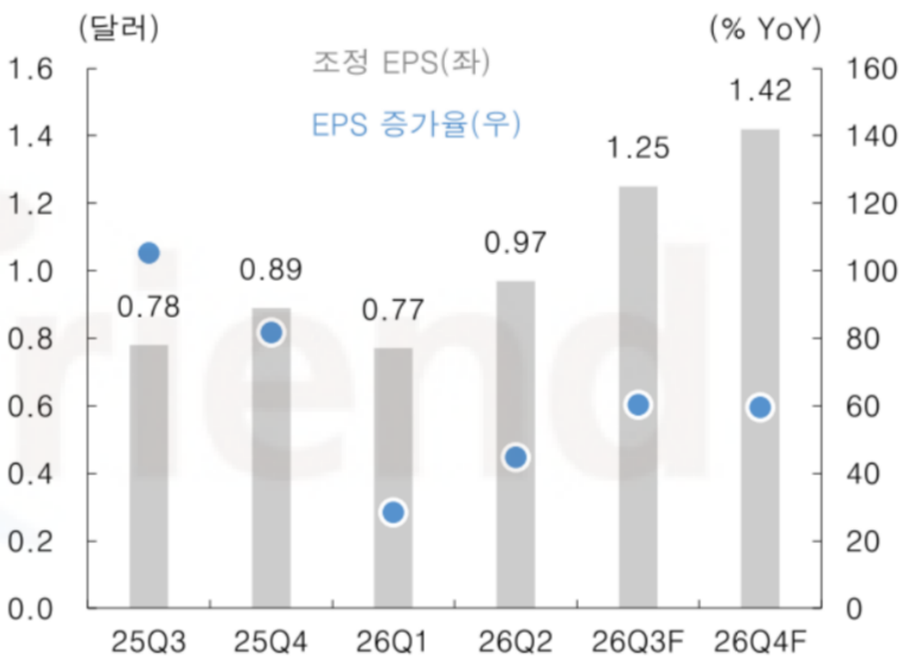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 [그림 3] 12개월 선행 EPS: 한국 & 미국

주: MSCI 지수 기준
자료: Datastream, 한국투자증권

## [그림 4] 엔비디아 실적 전망: EPS와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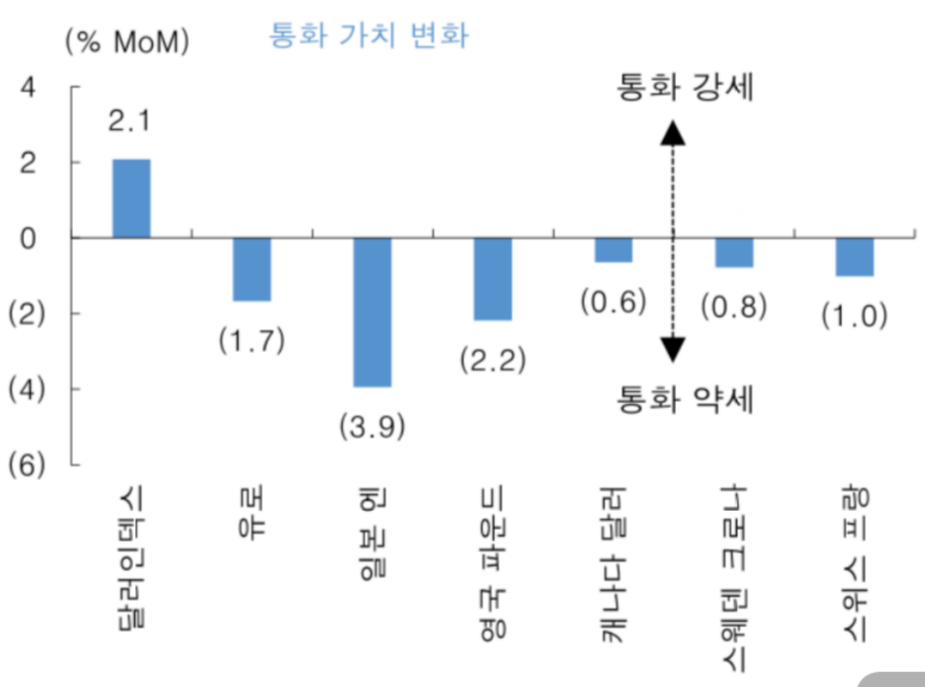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그림 5]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 [그림 6] 달러인덱스와 주요국 통화 가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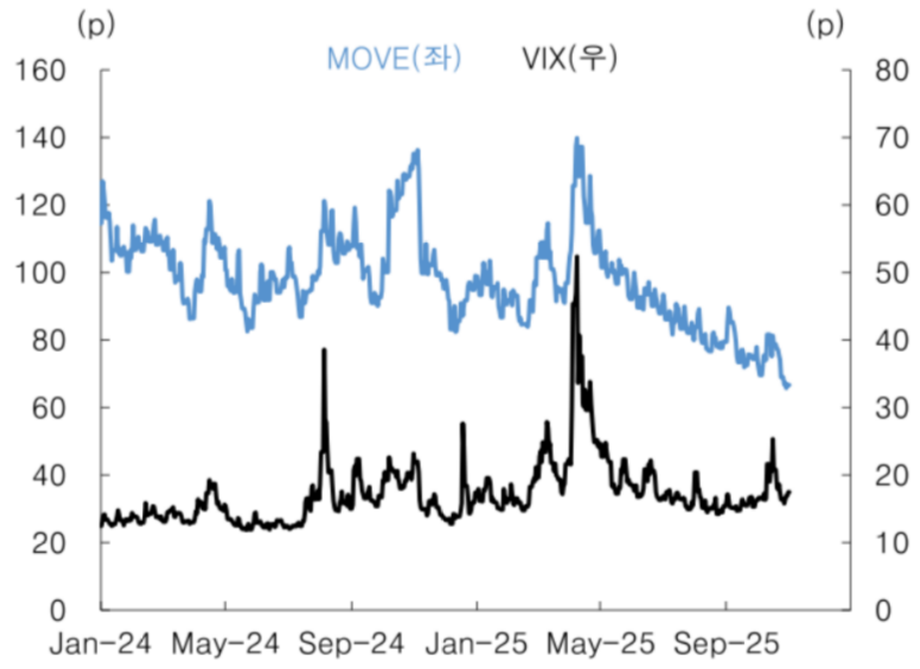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7] 한국 CDS 프리미엄과 VKO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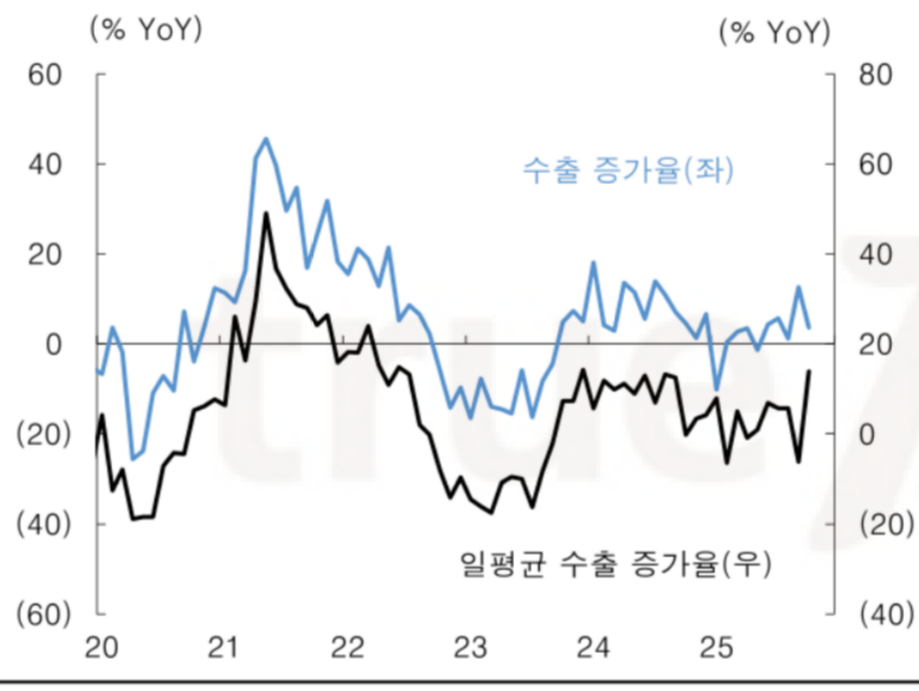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8] 미국 변동성 지수: 주식(VIX) & 채권(M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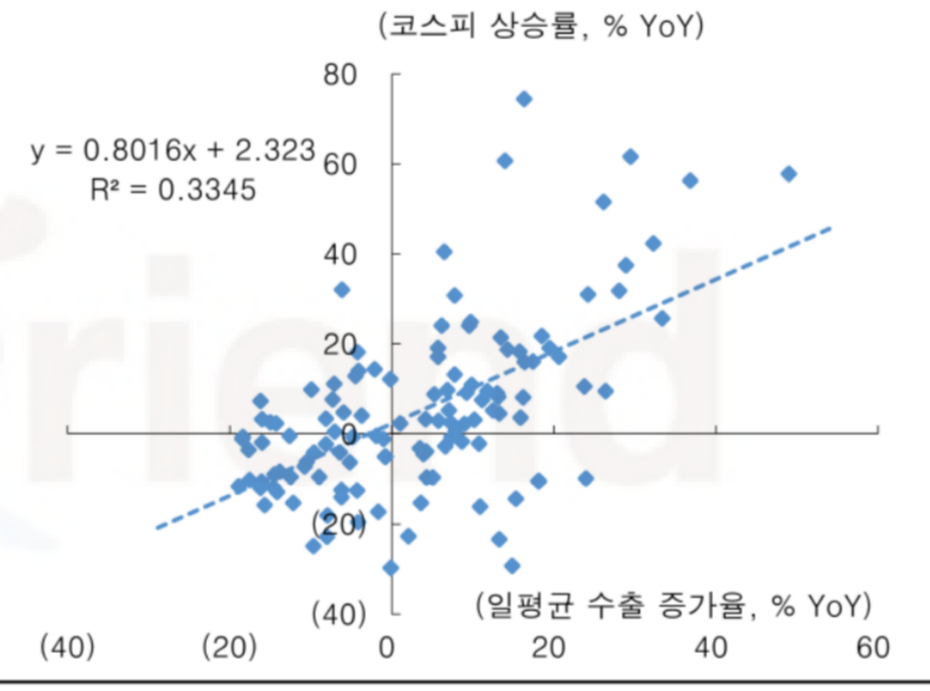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9] 한국 수출 증가율: 일평균 수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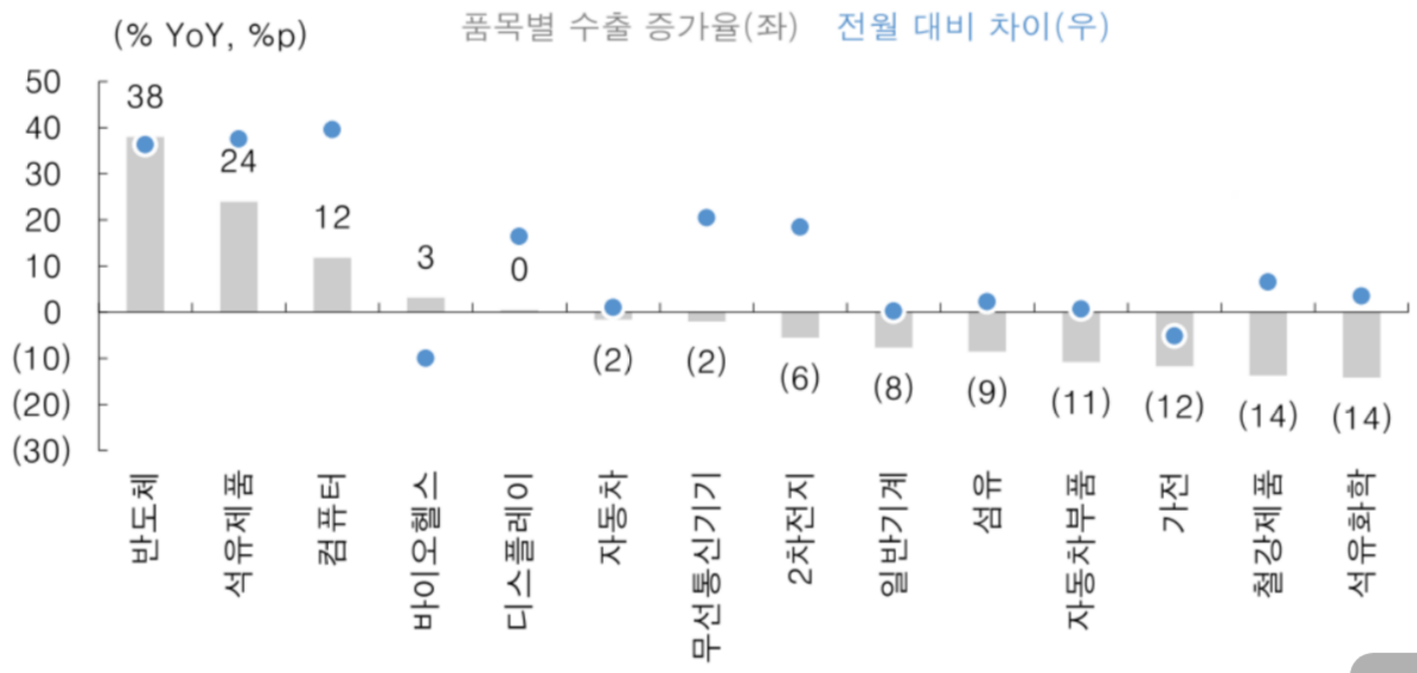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코스피 상승률과 일평균 수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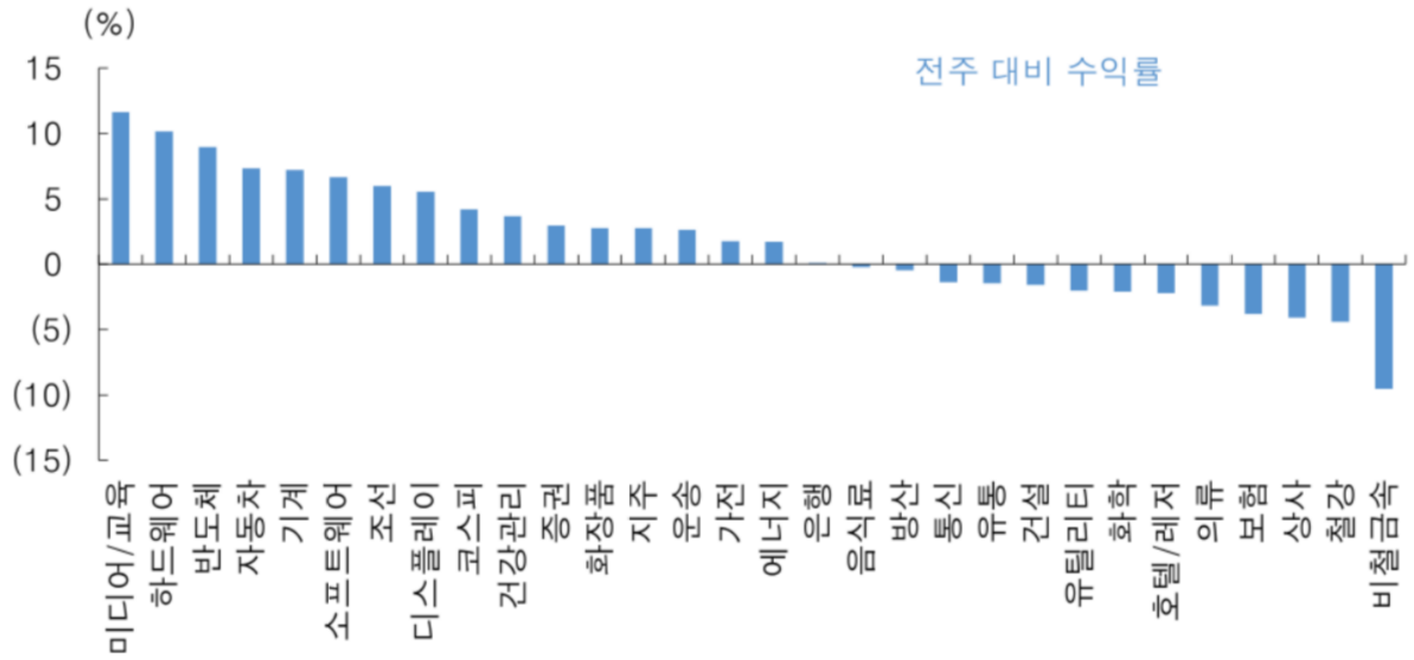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10월 품목별 일평균 수출 증가율: 반도체, 컴퓨터, 디스플레이 등 양호




주: 15대 주요 품목 중 수출 변동성이 큰 선박은 제외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12] 업종별 주간 수익률: 10/27~10/31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 본 리포트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리포트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리포트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